



월영습지



솔티숲

# 정읍 월영습지·솔티숲 국가생태관광지 지정

### 저층형 산지 습지로 수리부영이 등 동·식물 276종 서식 전북서 2번째...환경부, 철원 철새도래지 등 6곳 지정

정읍 월영습지(사진)와 솔티숲이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생태관광지인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환경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월영습지와 솔티숲은 저층형 산지습지로 생태계의 보고다. 또 내장산국립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월영습지는 송산·쌍암동 일원 37만 4960㎡로,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국립습지센터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동·식물 서식상태와 습지기능 등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월영습지는 절대보전등급 1

등급으로 평가받아 지난 2014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 산 정상부 일대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 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옛날 농경지로 사용됐던 폐경지가 자연 천이에 의해 복원된 지역이다.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진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해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 구렁이·말뚝가리·수리부엉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과 포유류·조류·육상곤충 등 동물 122종, 식물 154종 등 총 276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환경부는 68억원을 들여 습지를 복원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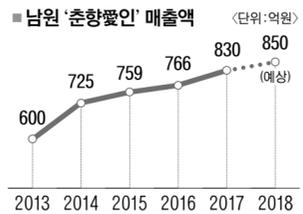
계획이다. 4개 습지 중 작은 월영습지 1곳에 대한 복원을 마쳤다. 솔티숲은 인근 송죽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운영하는 마을숲이다. 생태해설 탐방을 비롯해 역사문화체험, 떡 만들기 체험, 다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 곳은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의 간절한 기다림과 조선 말 천주교 박해를 피해 들어온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애환, 6·25전쟁의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주민들이 모시를 재배해 그 소득을 마을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노령 연금을 지급하는, 국내 최초의 노인연금 지급마을로 유명하다.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정읍시는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2016년부터 15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269m 내장 생태탐방데크길을 올해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또 5억원을 들여 3.5km의 생태 탐방길도 개설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자연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해 국가생태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며 "오는 2024년까지 총 73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고 생태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월영습지·솔티숲과 함께 강원 철원 철새평화마을, 경북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경남 김해 화포천 습지, 경남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제주 저지 곳자왓과 오름 등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춘향애인' 매출 '쑥쑥'...농가 소득 효과 '톡톡'

### 올 850억원 넘어설 듯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애인)'이 해마다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며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있다. 28일 남원시에 따르면 춘향애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830억원으로, 전년도 766억원보다 8.4%(64억원) 증가했다. 춘향애인은 '정성 춘향골 남원에서 정성껏 생산된, 사랑을 담은 농산물'이란 뜻이다. 춘향애인은 출범 첫해인 2013년 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순조롭게 출발한 뒤 2014년 725억원, 2015년 759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추세대로 이어간다면 올해는 8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춘향애인의 성공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규모화, 차별화한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생산자 단체별로 50가지가 넘는 개별 브랜드가 난립하다 보니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브랜드를 통합했다. 남원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해 품질을 엄격히 관리했다. 지역 농협들과 함께 상품화와 수출을 지원하고

마케팅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출범 이듬해인 2014년에는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전국 농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전국 12대 브랜드에 선정됐다. 2015년에는 최고의 영예인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국내외 소비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의 조사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농가들의 반응도 좋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지도가 상승하고 규모화가 이뤄지면서 시장 교섭력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며 "국내 최고 브랜드로 키워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 군산항 지난해 물동량 1924만 전년보다 2% 증가

지난해 군산항 물동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2000만에 육박했다.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총 1924만t으로 전년보다 2% 정도 증가했다. 물동량 가운데 컨테이너가 6만8506 TEU로 전년보다 21%가 늘었다. 이는 신규 항로(군산~중국 위해) 개설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화물별로는 자동차가 34만8824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서류원료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11% 줄었다. 이들 화물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45%에 달했다. 신규로 취급한 유연탄 화물은 35만2000t으로 조사됐다. /군산=박금식기자 nogusu@

#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신입생 모집

### 내달 12일까지 345명

고창군은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농업리더 양성을 위해 '2018년도 농촌개발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이며 총 7개 과정 345명이다. 정규과정은 수박·멜론과(40명), 딸기과(40명), 치유체험관광과(40명), 화훼과(60명) 4개 과정이며, 특별과정으로 농산물가공과(100명), 체리과(25명), 땅콩과(40명) 3개 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화훼과는 지난해에 특별과정으로 편성·운영했으나 고창국화축제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농가호응이 좋아 올해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하고 모집인원을 늘렸다. 교육과정은 농가 재배기술 향상 교육

을 통해 명품화, 브랜드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작목별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년 동안 전문 강의와 실습, 토론, 현장견학 등이 이뤄진다. 우수교육생에게는 해외연수 특권이 주어진다. 농촌개발대학은 선발 후 2월2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22일 수료식까지 총 20회에 걸쳐 100시간 이상 전문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행형 고창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맞춤형 작목별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농산물 종합 가공처리와 치유체험 관광 등 6차 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며 "농가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창농촌개발대학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 부안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 수급 기회 확대 나서

부안군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부안군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 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이 반영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 가구 209만6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기초연금 신청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올해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면 향후 5년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액이 부합될 경우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부안군 노인 인구의 82.2%가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수급액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6050원이 지급(부부 각 20% 감액)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 옛 군산시청 터 시민광장·쉼터로 바뀐다

### 공연·체험·야시장 등 조성

옛 군산시청 부지가 휴식과 공연을 위한 열린 시민광장으로 거듭난다. 군산시는 중앙동 옛 시청부지 내 건물 철거하고 6월까지 시민 휴식광장과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5년 옛 시청사 부지 4373㎡를 매입해 활용방안을 고심해왔다. 지역에서도 체험형 관광지, 예술·창작 공간, 근대역사 관광 중심센터, 주차장 조성 등 의견이 분분해 결국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광장 및 쉼터로 조성

하기로 했다. 이 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근대역사지구와 인접해 활용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산시는 1914년 건축돼 1996년까지 군산행정 중심 역할을 했던 시청사를 철거한 뒤 6월까지 시민광장 조성을 마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쉼터가 조성되면 근대역사건물이 산재한 옛 도심권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공연·체험·야시장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식기자 nogusu@

## “점포임대”

- 광주 북구 매곡동 214-4번지 (대화아파트 상가)
- 1층,5평,버스승강장 바로앞, 장소좋음
- 보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 현, 옷가게, 타업종 가능
- 비/권 - 1350만원
- 문의, 010-3605-5000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닝**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제 패던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린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번호: 10-0952035호, 10-1097784호, 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경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